

EBS연계 고전시가 <만연사> 폭풍 요약본

LaUNCH-TIME

사람은 길어봐야 수명이 100년인데, 나는 고작 34년 살면서 별의 별일을 다 겪었다. 나만 그런가? 섬에 앉아서 우울하기만 하다.

11살에 엄마를 잃고 외가에서 10년을 자랐다. 새엄마는 좋은 사람, 입신 양명해서 은혜를 갚고 싶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글 짓기도 열심히 해 주위로부터 영재 소리를 들었지만, 훌륭한 아내가 없어서 고민이었다.

그러다 20세가 되기 전에 아내를 얻었다.

입신양명해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여자, 술을 즐기니 흥이 나지만, 부모님이 걱정하니 그만하고 공부를 다짐했다. 3년을 공부하여 결국 궁궐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부서의 관리로 등용되었다.

궁궐 일을 하며 비단 옷, 멋진 안주를 누리며 호화로운 삶을 누렸으나, 비리를 저질러 옥에 갇혔다. 생각해 보면 궁에서 누린 모든 것들은 임금님 은혜인데, 갚고자 해도 버림받아서 갚을 수가 없다. 그래도 그런 날 살려주시니 임금님의 성은이 망극합니다.

유배지로 떠나니 가슴이 아프고, 부모와 이별하니 눈물이 나고, 초목산천이 다 슬프게 느껴진다. 게다가 유배 가는 길은 또 왜 이렇게 멀고 험한지, 배타고 가다가 멀미로 죽겠다.

여차여차 하여 추자섬에 도착하니 여기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지옥이다. 뭐가 아무것도 없다.

우선 유배지에서 잘 곳을 구해야 하는데, 가는 곳마다 죄인 받기를 거절하고, 결국 강제로 관리가 어느 집에 나를 맡겼더니 집주인, 감히 관리에게는 못 대들고 나 들으라고 하는 말.

집 주인: “아니, 다른 잘사는 집을 나와고, 네 세 식구 먹고 살기도 빠듯한 우리 집인 건데?”

결국 잘 곳은 구했으나 집주인은 방 하나 내주지도 않고 처마 아래 대충 누워 자니, 뱀과 지네가 득실거리는 게 징그럽다. 밥은 나와도 간장에 보리밥. 집도 밥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잘나가던 내가 이런 꼴이구나. 거기 농부야 너는 보리밥 배부르게 먹니?

농부: “오 오, 배부르게 먹고 남은 걸로는 술도 만듦”

농부가 저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농사나 지었지! 이리 망할 줄 알았으면 권력은 눈도 안 찼지!

집 주인: "옆집 다른 귀양 객들은 너보다 출신이 높은데도, 다들 새로 기술 배워서 생활에 보태는데, 너는 돈이 없니 발이 없니 밥만 훔내고 앉았구나. 어휴!"

아- 주인장 나 들으라고 저 소리 또 한다. 짜증나고 듣기 싫다.

추자도 사람들은 인륜은 개나 쥐버리고 다들 돈만 쫓는다. 이게 다 임금님의 교화가 이까지 닿지 않아서다. 내가 유배지에서 이런 꼴을 봐야겠나 싶지만, 그냥 관두기로 했다.

집 주인이 닭달하니 일단 돈을 벌어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구걸을 하기로 했다.

구걸하러 가는 길인데 어린 애들이 나를 "귀양 다리"라고 부른다. 다리란 다리는 다 밟으며 놀았던 나지만, 그건 처음 듣는 말인데.. 아. 귀양 객을 낮춰 부르는 말이구나. 그냥 나를 귀양손님이라 불러주면 좋겠다.

아무튼. 구걸하러 가서 뭐라 말 못하고 우물쭈물 섰더니 그 집사람 눈치채고 보리 한 말 주거늘, 들어줄 사람이 없어 킁킁대며 끌고 왔더니 주인 하는 말,

집 주인: "양반도 별거 없구만? 오늘은 밥 많이 드쇼"

주인장 웃는 꼴 보기도 싫고 밥 많이 먹기도 싫다. (많이 먹으면 금방 보리를 다 먹고, 또 구걸하러 가야 하니까) 내 굶을 망정 구걸은 이제 못해먹겠다. 신 삼기 듯자리 꼬기부터 해보기로 했다.

어느덧 가을이 왔다.

임금님이 너무 보고 싶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서러워 자살기도를 할 정도다. 임금님 소식 기다리다 온갖 병 다 생기겠다. 임금님 나 좀 꺼내주세요ㅠ

그 사이에 겨울이 왔다. 너무 춥다.

주인이 방을 하나 줬는데, 벽 틈 사이에 벌레들이 너무 많고, 온돌도 따뜻하지 않다.

추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는데, 지금 내 모습이 사람 꼴이 아니다. 내 모습을 임금님께 보여드릴 수 있다면, 측은한 마음에 당장이라도 구제 해주실 텐데 어떻게라도 전할 방법이 없어서 더욱 슬프다.

햇살이 비치는 낮 동안에는 그래도 별이 따뜻했는데, 곧 해가지니 밤이 또 걱정이다. 잠도 못 자는데 밤은 왜이리 긴 건지, 가슴이 답답해서 창이라도 내고 싶다.

귀양살이 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설마 돌아갈 수 있겠지, 이 슬픔 안빈낙도로 잊어보려 한다. 낚시질을 해보고 백구와 대화해보지만, 이 시름은 잊을 수 없다. 역시 밤에 잠이 안 온다.

생각할수록 서럽고, 담배만이 내 친구라 담배로 잠깐 잊었다가도 다시 생각해보면, 내 고향(아마도 서울) 어

디 두고 이런데 와 있나? 그저 옛날이 그리울 뿐이다.

이런 상황에도 한해는 지나가 설이 찾아왔다. 그래도 설이라고 집 주인이 밥은 넉넉히 챙겨준다.

유배를 떠난 것도 벌써 작년 일, 가족들은 잘 있나 궁금하지만 소식이 닿지 않아 슬프다.

꿈에서라도 고향을 보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 슬프다.

짐승들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사람인 나는 왜 그러지 못한 건지 눈물이 그냥 막 계속 난다.

봄이 왔다.

서울에 피던 꽃이 여기에도 핀걸 보니 옛 생각이 난다. 작년 꽃놀이 하던 때 보던 꽃은 그대로인데. 나는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사람 인생 고락은 잠깐의 잠에 불과하다.

한 벌 옷으로 봄-여름-가을-겨울을 지내고 있다.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싶다. 여름에 더워서 겨울이 오길 소망했는데, 겨울이 되면 또 여름을 바라니, 봄과 가을만 있으면 좋겠다. 바지가 터졌다. 내 손으로 기워보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아침엔 죽이라도 나왔는데 저녁에는 밥도 안 준다. 배가 고파 미치겠다. 배터지게 먹고 싶다.

일단 의식주가 갖춰져야 예든 뭐든 차린다는 옛사람의 말. 사양하고 체면을 차리는 것은 군자의 예절이고, 굶주려도 좁쌀을 먹지 않는 것. 그것이 장부의 염치다.

처음엔 못하겠던 일(자리 짜기)도 지금은 어떻게든 배웠다. 벼들을 놀리다 보니 팔이며 목이며 성한 곳이 없다. 이 가는 목숨 이어가니 생명의 소중함이 이제와 느껴진다.

시간은 계속 지나가 작년의 것이 올해도 또 되풀이 된다. 나쁜 일 이후에 좋은 일이 오거늘, 고진감래는 언제 올까!

하나님! 달력은 매년 새로 쓰고, 화난 일도 다음 날이면 풀리는데, 이만하면 충분하니 제가 잘못된 것들 이제 그만 용서해 주시고, 제발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오오오...